

군산 수제맥주, 중국 칭다오와 맞손

신원식 군산 부시장, 청도 찾아 MOU 체결... 아시아 맥주 문화 세계적 선도 '기대'

지난 25일 군산시는 중국 칭도시 인민대표부와 칭다오맥주 그룹이 군산시와 MOU를 전격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원식 군산시 부시장과 마닝 칭다오맥주 그룹 해외 세일즈 총괄대표가 대표로 양해각서를 교환했으며, 이후 양 도시의 축제 교류 협력방안과 함께 칭다오 맥주회사의 수제맥주 제품 라인의 축제 참가를 논의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2025년 군산 수제맥주 축제에 칭다오맥주 축제와 홍보관 운영 △칭다오 맥주축제에 군산맥주 참여 △향후 군산과 칭다오의 맥주 축제 관련 지속적인 교류협력에 담겨 있다.

마닝 칭다오맥주 해외 세일즈 총괄대표는 "청도까지 직접 찾아와주시신 신원식 부시장에게 군산의 맥아와 수제맥주 창업스토리를 듣고 깊이 감동했다"면서 "이번 MOU를 계기로 2025년 군산 수제맥주 축제에 칭다오맥주 수제맥주 제품 라인을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MOU는 리홍빙 칭도시 인민대표회의 부주임의 전격적인 제안으로 급물살을 타고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리홍빙 부주임은 "맥주도시 청도의 노하우를 군산과 공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칭다오맥주가 군산 맥주축제에 참여해 한중 맥주 문화 조성에 적극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칭다오 측은 지역의 물과 맥아, 쌀을 사용하여 신선함을 강조하며, 지역 맥주로 시작해서 세계적인 담브



지난 25일 군산시는 중국 칭도시 인민대표부와 칭다오맥주 그룹이 군산시와 MOU를 전격 체결했다고 밝혔다.

랜드가 되었던 칭다오맥주와 군산맥주가 비슷한 스토리를 가졌다는 점에서 큰 인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군산시는 군산 농민들이 생산한 보리를 군산맥아로 가공하고, 지역 청년들의 소규모 맥주 창업을 지원하고, 맥주 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한국의 대표 맥주축제로 자리매김하는데 성공했다.

신원식 부시장 역시 만남에서 이런 군산의 성공스토리를 전달하며 "칭다오 맥주는 중국의 상징이 되고, 문화유산이 되었다. 우리 군산시도 군산맥주만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면서 "군산시와 청도가 협력하여 아시아인의 맥주문화를 함께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MOU가 체결된 이후 군산시와 청도는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MOU는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축제가 중국 청도맥주축제와 손잡고 한중간의 새로운 교류의 장을 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원식 부시장은 "양 시가 지역 맥주를 기반으로 축제를 개최하는 만큼 축제와 지역 맥주의 교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맥주가 서양 문화의 하나로 시작됐지만 이제 군산시와 칭다오가 협력해 아시아의 맥주 문화를 세계적으로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민대상' 수상 후보자 모집

문화체육·산업·사회봉사·효행·친환경·농업·교육 분야 내달 26일까지 신청... 10월 익산시민의 날 기념행사서 시상

익산시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서 헌신해 온 시민들의 공적을 알린다. 익산시는 다음달 26일까지 익산시 최고의 명예와 권위를 자랑하는 '제29회 익산시민대상' 후보자를 모집한다. 수상 분야는 △문화체육대상 △산업대상 △사회봉사대상 △효행대상 △친환경대상 △농업대상 △교육대상 등 총 7개 부문이며 각 부문별 1명씩 선발할 예정이다.

후보자는 각 사회단체장, 유관기관장, 기업체장, 학교장, 담당관·과·소장, 읍면동장, 시민의 추천을 받아 행정지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민 추천은 19세 이상 시민 30명 이상의 연서가 필요하다.

추천된 후보자들은 현지 확인과 부문별 심사위원회, 전체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10월 제29회 익산시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시민대상은 익산시민에게 주어지는 가장 값지고 영예로운 상"이라며 "우리시 발전을 위해 헌신한 분들과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밝히는 숨은 주역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추천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해까지 155명의 익산시민대상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지난해에는 4개 분야에서 익산의 명예를 빛낸 4명의 수상자를 선발해 시상한 바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문화유산야행 '어린이 국가유산 해설사' 위촉식

오는 8월 군산문화유산야행(8월16일~17일, 8월23일~24일) 기간 동안 군산시 아이들이 직접 국가유산을 해설하는 '어린이 국가유산 해설사' 위촉식이 군산시청 4층 상황실에서 열렸다.

이번 위촉식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양성과정을 이수한 군산사 초등학교 3학년~6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군산문화유산야행 '2기 어린이 국가유산 해설사' 27명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이번에 위촉된 어린이 국가유산 해설사 일동은 8월 17일, 8월 23일~24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구 군산세관본관, 구 일본 제18은행 군산지점,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4개의 국가유산에 배치되어 활동한다.

군산시는 관광객들에게 지역 어린이의 시각으로 군산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설명하는 모습이 신선한 감동으로 느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장, 어린이 풀장 안전상황 점검

안전·수질 관리 철저히 당부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달 20일부터 운영중인 어린이 풀장의 현장 상황 및 안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27일 현장 행정을 실시했다.

이날 정현을 시장은 영등시민공원 등 곳곳에 설치된 어린이 풀장을 찾아 익산시 체육회 관계자로부터 풀장 운영 상황을 들었다. 이어 수질 점검 및 물 미끄럼틀과 아동풀, 유아풀 등 시설의 전반적인 안전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어린이 풀장은 익산시 체육회 주관으로 오는 8월 18일까지 △영등시민공원(분수대) △모현공원(광장) △중앙

체육공원(총서정) △유천생태습지공원(광장) △함열돌샘공원(주차장) 5개소에서 운영된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나 점심시간은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고 유아풀은 5~7세, 아동풀은 초등학생 1~6학년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공원 안에 위치해 가족단위 나들이객 모두 편안한 휴식과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정 시장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의 안전한 만큼 안전관리자 운영과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시민들이 풀장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회계업무 직무 역량강화 교육 실시

군산시(시장 김임준)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각 부서 회계 담당자와 신규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회계 담당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연계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회계시스템에 직원들이 신속히 적응하고 회계업무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에서는 부서의 예산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회계담당자들이 회계의 기본 개념과 실무 능력을 익혀 업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업무 처리 시 겪었던 어려움에 대한 질의응답과 사례 중심으로 진행되어 애로사항과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됐으며 담당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회계실무를 경험한 강사의 교육으로 직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무 적용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하반기 노인일자리아사업 추가 개시

335명 추가 운영... 경로당 발건강관리 사업·식사 매니저·모니터링단 등 활동

익산시가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역현안 해소를 위해 하반기 노인일자리아 사업을 운영한다. 익산시는 다음달부터 하반기 노인일자리아사업으로 335명이 추가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노인일자리아사업은 사회적 관계 증진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부터 1만 11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익산시의 만 65세 이상 노년 인구는 지난해 기준 6만 3,284명으로 2022년 대비 3,239명이 증가했으며, 노인일자리아의 양적인 확대와 질적인 성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익산시는 국비 6억 원을 포함한 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해 하반기 노인일자리아사업 운영을 결정했다. 하

반기 일자리아 유형은 전문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해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공공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으로 월 60시간 활동에 75만 원을 받는다.

다음달부터 익산시노년종합복지관(관장 김병기), 대한노인회(회장 류창현), 익산시니어클럽(관장 백종환), 원광효도마을시니어클럽(관장 신이원) 등 4개 기관을 통해 업무를 진행한다.

먼저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많은 '찾아가는 발건강관리(발맞사지)' 사업단에 48명을 추가해 경로당의 다양한 문화건강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일주일에 5일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 100개소에 설거지와 조리배식, 위생교육 등을 지원하는 식사 매니저 100명을 파견해 시범 운영한다. 참여

어르신은 보건증을 발급받고 화상·식중독 안전교육을 진행해 특별히 안전사고에 유의할 계획이다.

그 외 사업으로 경찰 경력을 활용한 행정복지센터 안전도우미, 늘어난 노인일자리아 관리를 위한 노인일자리아 모니터링 사업단, 국도비 보조사업 모니터링 등으로 활동해 지역사회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할 예정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노인일자리아 사업은 노인의 소득 공백을 완화하고 사회활동 지원으로 우울감 해소 및 의료비 절감 등의 사회적 효과가 크다"며 "정부정책과 발맞춰 사업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지역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아를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시민과 함께하는 몽골 전통 축제 성료

익산시가족센터, 나담축제 진행... 이주민 200여명 참석

익산시가족센터는 27일 모현공원에서 도내 거주 몽골 이주민 200여 명과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나담축제'를 진행했다.

나담축제는 매년 7월에 열리는 몽골 최대 전통축제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씨름, 말타기, 활쏘기 등 37가지 경기를 중심으로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하는 스포츠 축제다.

익산시가족센터는 외국인주민 지역 정착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몽골의 문화를 지역주민에게 알리고 몽골 이주민들 간의 교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몽골 유학생들의 노

래·춤 공연과 기념식으로 시작했다. 이어 가족의 복사빠를 이용해 반대편 말을 맞추는 몽골의 전통 놀이 '사가이'와 씨름 등을 진행하고 몽골문화체험관, 만들기 체험이 운영됐다.

이정임 익산시가족센터장은 "몽골 이주민들이 고국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며 축제를 통해 한국에서도 고향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시장은 "몽골 이주민 분들과 지역주민이 문화소통하는 시간이 마련돼 기쁘다"며 "나담축제를 통해 모두가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이 펼쳐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